

Daily Auto Check

2022. 12. 26 (Mon)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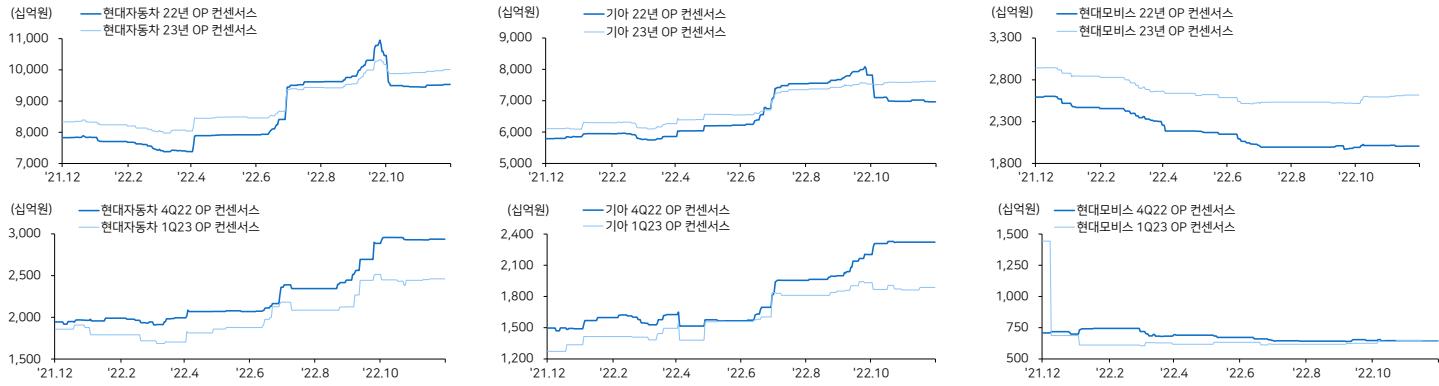
RA 장재혁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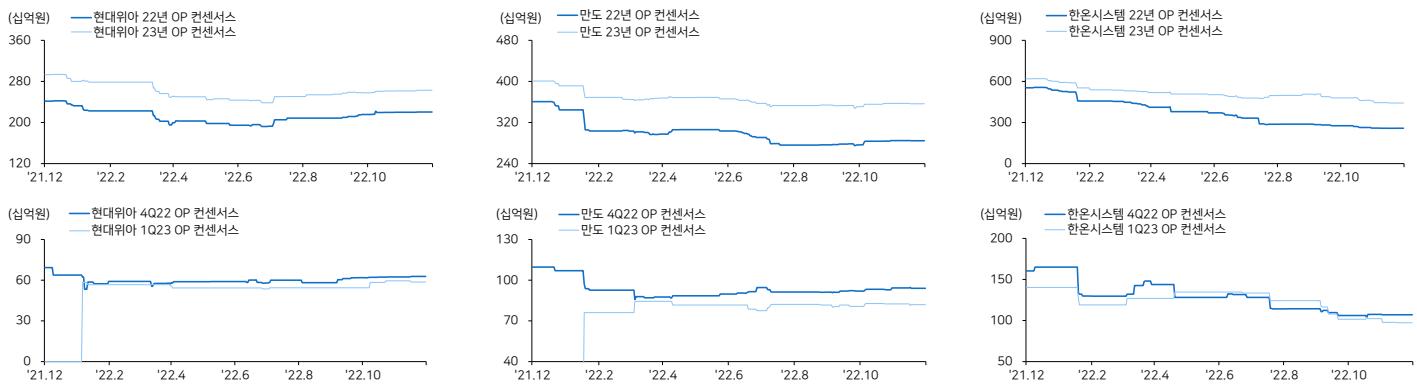
jaehyeok.jang@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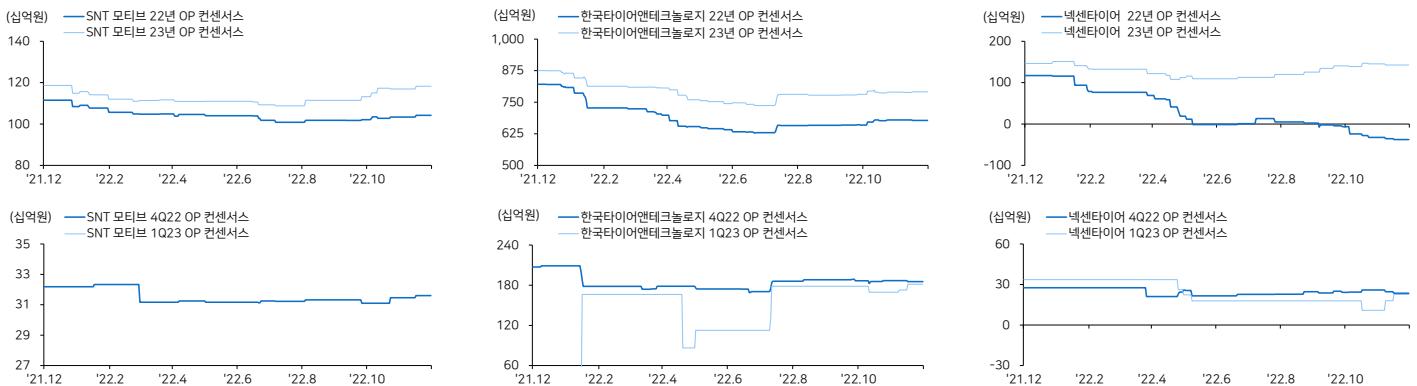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신차 대집 엣濒临...중고차 재고 역대급 (뉴스마트)

올해 중고차 재고는 역대 최다로 쌓였고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옴. 최악의 경우 중소 중고차 매매업체들이 출도산에 처할 수 있다. 우려까지 등장. 업계 입장에서는 기존에 매입한 중고차를 판매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중고차를 매입하기도 어려운 상황.

<https://bit.ly/3I2oeXg>

스텔란티스, 자율주행 뒤쳐질까 'AI모티브 인수' (Auto Times)

스텔란티스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 가속화를 위해 관련 기업인 AI모티브를 인수. AI모티브는 2017년 프랑스 내 자율주행 시범사업을 위해 현재 스텔란티스 일원인 PSA그룹과 손을 잡았으며 지난해 소니의 자율주행 파트너로 채택된 바 있음.

<https://bit.ly/3YRcWe4>

Elon Musk defends Twitter distraction, again pledges to stop selling TSLA stock (electrek)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향후 18~24개월간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지 않을 것이다'며, 최근의 매도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 지난 두 번의 경기침체의 경험을 토대로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됨.

<https://bit.ly/3IOG7FA>

Tesla confirms 4680 battery cell production now enough for 1,000 cars a week (electrek)

테슬라는 4680셀의 생산량이 주당 1,000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발표. 지난 2월 프리몬트 파릴럿 공장에서의 100만 셀 생산 소식 이후, 생산 속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뉴스.

<https://bit.ly/3h0ET5R>

중국서 추락하는 현대차그룹...중국시장 6년 연속 판매량 감소 (글로벌이코노미)

올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중국 자동차시장 점유율은 2%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 또한 현대자동차그룹과 중국 합작사들은 막대한 손실과 재정적 압박에 직면하였으나, 현대차그룹은 중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음.

<https://bit.ly/3WtPBH5>

"2025년 테슬라 뛰어넘겠다" GM의 전기차 야심 (파이낸셜뉴스)

GM이 전기차 시장을 향해 빠르게 대처 전환에 나섰다는 분석. 보조금에 의존한 고가 모델에서 대중 전기차 모델로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확바꿔보겠다는 게 GM의 전략. 계획된 전기차를 모두 출시하는 2025년 세계 1위 판매를 목표.

<https://bit.ly/3HY7hgs>

Tesla takes delivery of army of robots to build Cybertruck (electrek)

테슬라의 모든 생산라인에 사용되는 Kuka 산업용 로봇 66대가 지난 18일 휴斯顿에 도착했다는 소식. 2023년 사이버트럭 생산 개시를 위한 생산장비 설치의 일환으로 주성립.

<https://bit.ly/3V1Uh0N>

Tesla suspends production at Shanghai plant (Reuters)

테슬라는 지난 토요일 상해공장 생산을 중단. 근로자들에게 휴식을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 공장이 연말 생산을 중단하는 것은 관행이 아니며, 중국에서는 COVID19 제로 정책을 완화한 이후 감염이 확산하는 중.

<https://reut.rs/3VkkQ93>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협력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